

강렬·담백한 매력...월출산의 두 모습

영암하정음미술관 영암출신 작가 류재웅·조병연 초대전

작가들에게 고향 산천과 그곳에서 보낸 기억은 영원한 영감으로 작용한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 작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터다. 그 중에서도 영암 출신 작가들은 '월출미술인회'를 결성, 활발한 그룹 활동을 통해 고향을 기억하고 매회 전시회도 열고 있다.

영암군립하정음미술관은 영암작가 초대전에 두 명의 작가를 초청했다. 서양화가 류재웅과 한국화가 조병연 작가다. 지난해에는 서양화가 정선휘·김진화 작가 전시회를 열었다.

오는 9월29일까지 열리는 전시의 주제는 '아름다운 진경'으로 강렬한 색감의 서양화와 담백한 수묵화의 매력을 동시에 만나는 전시이다. 두 작가 모두 영암을 소재로 한 대형 신작들을 많이 선보였다. 월출산의 웅장한 기운과 생명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로 각기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낸 작품을 비교·관람해 보는 것도 흥미롭다.

류재웅의 '풍경조우(風景邂逅)-풍경, 우연히 마주하다'전에 걸린 그림들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삶의 근원'이라

9월 29일까지 '아름다운 진경' 전 지역 풍광 담은 작품들도 전시

느낀 우리 땅과 산천을 치열하게 담아낸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오랜만에 월출산에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영산강을 굽어보고, 영암평야 광활함을 느끼며 그때 만난 풍경과 감흥을 화폭에 풀어낸 류 작가는 작업 내내 작가로 살아온 힘겨운 시간들을 위로 받은 기분이었다고 말한다. 작가는 천황봉과 그 주위를 감싼 향로봉, 사자봉, 장군봉 등 월출산의 여러 봉우리를 개성 넘치는 붓질로 담아냈다.

"나의 그림은 무엇보다 길에 대한 시선의 흐름에 특징이 있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들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유려한 산세, 구불구불 이어진 강과 어우러진 '길'이다. 눈덮인 산과 산속에 숨은 몇채의 집과 굽이굽이 흐르는 강, 그리고 그곳에 난 작은 '길'이 인상적이다. 그의 작업의 주 소재인 겨울산과 같은 눈으로



조병연 작 '도갑사 가는 길'

뒤덮여 있고 황량하지만 차가거나 서늘한 느낌 대신 웅진, 따듯하고 아늑한 기운을 전한다.

조선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류 작가는 12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광주구상작가회, 아트그룹 소나무회 회원 등으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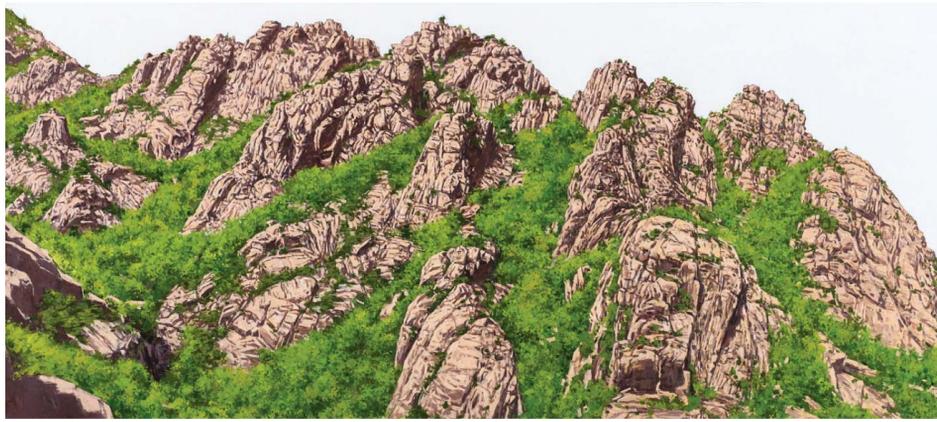
동중이다.

조병연의 '수묵일색남도산하(水墨日色南道山夏)남도, 수묵으로 풀어내다'전은 담백한 수묵담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전시작중 10m에 이르는 대작 '월출산전도'가 눈에 띈다. 월출산의 변화무쌍한 산세를 표현한 작품은 장엄한 풍광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고, 오밀조밀한 능선과 산의 골짜기가 전하는 기운은 하정음미술관 박수홍 학예연구사의 말처럼 '구성진 전라도 판소리 가락과 같은 울동'이 느껴진다.

전시에서는 은은한 수묵 담채 뿐 아니라 독특한 색감이 어우러진 수묵채색화와 함께 한지에 황토를 칠한 후 그 위에 수묵을 입힌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또 현재 해남 임하도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조 작가가 풀어낸 '땅길 마을에서', '임하도 해변', '미항사' 등 해남의 풍광을 담은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조 작가는 민족미술연합회 전남지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1-470-68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류재웅 작 '월출산-장군봉의 봄'

정기화 '그림을 듣고 화가를 읽다' 출간

마네·피카소 등 작가 18명 걸작 속 청각적 요소 분석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군중의 합성을 듣는다. 르누와르의 '물랭 드 라 갈레트 무도회'에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 아름다운 춤곡에 귀를 기울인다. 브뤼겔의 '농부의 결혼식' 속 왈츠소리는 소박한 서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주는 듯하다.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정답은 없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자기만의 풍성한 이야기와 또 다른 감동을 만날 수 있다.

정기화 화이트 큐브 갤러리 디렉터는 '청각'에 주목했다. 4년전부터 틈틈이 써 온 글을 묶어 펴낸 '그림을 듣고 화가를 읽다-공감적으로 느끼는 미술 이야기'(엔터간)는 '소리가 들리는 그림 이야기'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화가는 정씨가 대학원 시절 전공했던 르네상스 시대 작가 파올로 우첼로부터 시작해 에두아르 마네,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와르, 파울 클레, 파블로 피카소, 르네 마그리트 등 18명이다. 정 씨는 각 작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들의 걸작에 스며있는 청각적 요소들을 세세히 소개했다. 책 표지로 쓴 작품은 그림 전면에 배치된 바순 주자가 연주하는 멜로디가 들릴 듯한 에드가 드가의 '오페라좌의 관현악단'이다.

책의 출발은 몽크의 '절규'였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 불리는, 누구나 다 아는 '절규'를 관람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그림에서 느껴지는 시각적 충격도 컸지만 갑자기 머리 속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면서 청각을 자극하는 그 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남더라고요. 이후 그림을 볼 때면 노랫소리, 빗소리,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등 청각적 요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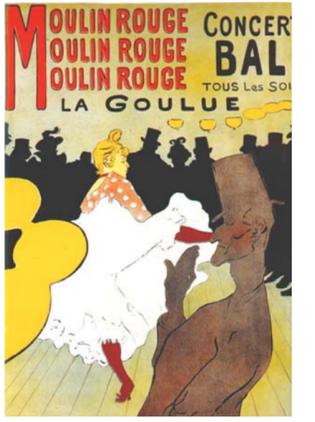
그림에서 '소리'를 찾는 건 그녀에게 그림 감상의 '묘한 즐거움'을 줬으며, 화가에 대한 분석, 시대적 배경 등으로 관심 사항이 확장됐고,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주제로 잡지에 기고를 하기도



했다. 그녀는 늦깎이로 미술 공부를 했다. 40대 후반이던 지난 2006년 조선대 미학미술학과 석사 과정에

서 박정기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때 20세기 도상해석학의 거장 파브노스키를 만나 작품의 다양한 의미층을 찾고 종합적으로 그림을 분석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지난 2017년 광주시 서구 매월동에 화이트큐브 갤러리를 오픈한 정씨는 "짧은



로트릭 작 '물랭루즈 라 굴뤼'

기간이지만 갤러리를 운영하며 느낀 게 미술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이 책이 그림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그림에 다가갈 수 있는 소박한 길잡이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다. 처음 책을 내는 거라 힘들기도 했다는 그녀는 앞으로 공감각과 관련된 또 다른 소재로 글을 더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열두달이 다 좋아' 국악 공연

'광주국악상설공연' 무대 오늘 공연마루...박애리 출연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14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국악공연 '열두달이 다 좋아'를 무대에 올린다. '광주국악상설공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날 공연은 국악인 박애리(사진)가 출연해 진행자로 함께한다. 목포 출신으로 중요무형

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인 박애리는 제46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명창부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이날 공연은 관현악곡 '신밧놀이'로 막을 올리고, 창작무용 '환영(幻影)의 미소',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도 공연하며, 박애리가 '쑥대머리, 열두달이 다 좋아'를 부르는 무대에 마련된다.

한편 광주국악상설공연은 광주 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진행된다. '김미숙부리 한국무용단'의 무용 공연(15일), 전문문화연구원 '얼쑤'의 타악 퍼포먼스 '해설이 있는 인수화풍'(16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회 '산유화'(17일), '피리정악 및 대취타 보존회 광주호남지부'의 연주회(18일) 등 공연이 준비돼 있으며, 18일 이후부터는 매주 토요일에 시민을 만난다. 전석 무료. 문의 062-613-837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ACC '아시아의 표해록' 전시 안내 점자책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 라이브리리파코 테마전 '아시아의 표해록(漂海錄): 바다 건너 만난 이웃'에서 전시안내 점자책(점자 리플렛),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해 제공한다. 이번 전시안내 점자책과 수어 해설영상은 상대적으로 전시 관람이 어려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7일까지

ACC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코 기획관3에서 진행된다. '표해록'은 항해 도중 풍랑을 만나 낯선 곳에 도착해 경험한 이국의 문물과 귀국 여정을 담은 기록을 뜻하며, 아시아문화원의 표해록 연구와 자료수집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동아시아의 문화적 풍경과 교류 양상을 전시로 선보인다. 무료 관람. 문의 062-601-4430. /박성천 기자 skypark@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5년
1954~2019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5	5
총 계		95	28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19. 9. 6(금) ~ 10(화) · 전형일: 2019. 9. 27(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향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19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4
		목회학과(D.Min.)	2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3
		신학과(Th.M.)	10
		유아교육학과(M.Ed.)	6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4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8. 5(월) ~ 16(금)

· 전 형 일: 2019. 8. 20(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